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관리 강화방안

2008. 2

= 목 차 =

I . 검토배경	1
II . 의료기관 보건관리 실태	2
III . 그간의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문제점	3
1. 그간의 제도개선 추진현황	3
2. 문제점	4
IV . 의료기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방안	6
1.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6
2.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7
3. 의료기관 산업보건 예방활동 조기정착 유도	8

I

검토 배경

□ '07.12. 한국노총에서 의료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방안 토론회 개최 및 관련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08. 2. 현재 53,586개 의료기관에 52만명이 종사¹⁾하고 있으며,

○ 의료기관 종사자는 간호사, 의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

(단위 : 천명, %)

구 분	계	의 사	간호사	약 사	임 상 병리사	방 사 선 사	물 리 치료사	치 과 위생사	기타
종사자	416 (100)	104 (25.0)	205 (49.3)	33 (7.9)	16 (3.8)	14 (3.4)	16 (3.8)	17 (4.1)	11 (2.7)

자료 : 보건복지부 정책참고자료(2006)

□ 의료기관은 보건전문가로 구성되어 보건관리가 양호할 것이라는 일반 인식과는 달리 산업보건의 취약지대로 나타남

○ 근무형태 및 업무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건강유해요인 및 감염병 등에 노출

구 분	건 강 유 해 요 인
근로조건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시간·야간·교대근로가 일상적으로 행해짐
작업환경	직업성 천식 및 암 등 화학물질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 항암제, 소독제 및 마취제 등의 노출위험 상존
신체부담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환자운반 등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생물학적	환자 진료·검사·수술과정 등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감염병 전염위험이 높음
기 타	주사침 손상 및 소음, 진동, 방사선, 자외선 등 물리적인자 등 다수

1) 우리부 노사누리 고용보험사업장 의료업종 통계임('08.2.11)

II

의료기관 보건관리 실태

□ 업무상질병 발생현황

○ 근골격계 질환, 세균·바이러스, 뇌심혈관질환 순으로 발생

- 사고성 요통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업무상 질병자수는 '07.10월 현재 1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123명) 16.3% 증가

(단위 : 명)

구 분	계	뇌심혈관질환	세균·바이러스	근골격계질환	기 타
2005년	171	32	44	67	28
2006년	316	33	57	209(153)	17
'06.10월	234	22	44	156(111)	12
'07.10월	324	34	54	222(181)	14

주 : () 사고성 요통, '06. 5월부터 통계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업무상질병에 포함

□ 의료기관 보건관리 실태

○ '00~'05년 특수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본격적인 점검을 시작한 '02년 이후 실시율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실시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사업장수	38	42	358	330	420	504
근로자수	1,448	1,635	9,469	11,765	19,365	17,912
C ₁	23	92	123	103	356	177
C ₂	43	63	408	585	711	591
D ₁	1	0	2	2	33	2
D ₂	10	18	62	102	178	118

※ 2005년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의료기관은 12,493개소

※ 의료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수검 대상부서는 방사선 관련부서,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공급실, 마취과, 세탁실 등임

○ '06~'07년 안전공단의 의료기관 보건관리 기술지원 분석 결과²⁾에 의하면,

- 보건관리자 선임율은 90.0%('06년), 90.2%('07년)로 높은 편이나, 보건교육,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율 및 감염성질환예방 계획수립 등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실시율(%))

구분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 진단	보건교육	유해요인 조사	보호구 지급	감염성 질환예방 계획수립	혈액매개 감염예방
'06년	56.7	65.5	43.3	53.3	37.9	73.3	51.7
'07년	42.0	39.6	38.0	48.0	46.7	58.0	70.0

※ 지원대상사업장은 '06년 50인이상, '07년 20인이상 사업장으로 선정

III 그간의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그간의 제도개선 추진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 특별점검(2002. 7~9월)

○ 전국의 492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점검 실시

※ 점검병원의 96.1%(473개소)가 산안법 위반, 사법처리 1건, 시정조치 3,225건

□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의무 신설(2003.7)

○ 보건규칙 개정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에 대하여 감염병예방조치, 유해성 등의 주지,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의무 신설

□ 의료산업종사자 보건관리 실태조사(2004.11월)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의료기관 944개소 설문조사(안전공단)

2) '06년 의료기관 기술지원사업장 101개소 중 30개소, '07년 의료기관 기술지원사업장 103개소 중 50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 의료기관 종사근로자 건강보호방안 마련(2005.9월)

- 산업보건 및 예방법규 이해증진을 위한 정보·자료 접근성 제고, 자주적인 보건관리역량 강화, 성과관리(Goal-setting) 방식의 지도감독 실시, 제도 개선·보완 검토·추진 등

□ 의료기관 종사근로자 건강보호사업 추진

- 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전용자료실 개설·운영 및 기술자료 3종 개발·보급
 - 의료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른 유해요인별 전문연구³⁾ 실시
-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관리 등 교육과정 개설 운영('06)
 - 의료기관 보건관리 기술지원 전담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 공단교육원에서 「의료기관종사자 보건관리」 과정을 개설·운영
- 의료기관 보건관리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지원 지속 실시

※ 지원실적 : '06년 보건관리 101개소, 근골격계질환예방 기술지원 220개소,
'07년 보건관리 103개소

2.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

-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유해위험요인 및 야간근로, 수직적 위계질서 등으로 과도한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으나 예방활동을 위한 산업보건관리의 필요성은 간과

3) 의료 종사근로자들의 감염성 질환 실태조사('05), 보건의료기관 화학물질 사용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06), 병원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특성 및 관리개선방안('07)

○ 의료기관 경영자, 의사·간호사 등 종사자는 스스로를 전문가로 인식하여 본인 뿐 아니라 종사근로자의 산업보건관리를 방치

- 의료기관 경영진은 의료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법적용을 경시하는 경향

※ 현재 공단교육원에서 「의료기관종사자 보건관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가신청이 저조

□ 보건관리자의 산업보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 보건관리자 선임률에 비하여 감염병예방조치, 건강진단 등 예방조치 이행률은 저조

- 보건관리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보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에 기인

□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 '02년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1회성 점검에 그쳤으며, 50인 미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이 전무한 실정

□ 고용형태 다변화로 인한 협력업체 등 사각지대 발생

○ 대형 병원에서 외주를 주고 있는 청소, 세탁, 수리보수, 간병업무, 간호보조 종사자들은 의료기관의 각종 건강유해요인 및 감염병 등에 노출

- 협력업체 산업보건 문제는 해당업체가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여 의료기관은 협력업체 보건관리에 무관심

IV

의료기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방안

1.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강화

□ 의료기관 경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 병원장 모임·회의시 의료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대한 교육 병행 실시(병원협회 협조)
- 간호부장 등 의료기관내 결정권을 가진 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사항 교육
 - 한국산업간호협회 등을 활용(자체교육 실시 등)

□ 직종별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강화

- 의사협회 등 직종별 단체와 연계하여 의료인들의 보수교육시 의료기관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교육 추진
 - 산업간호협회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예방법규 등 기본자료 등을 등재시키고 공단 의료기관 전용자료실로 직접 링크 되도록 유도('08년)

□ 관련 법령·지침 등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자료 제작 및 교육·홍보강화('08년)
 - ※ 지방관서를 통해 의료기관에 보건관리 예방의무 이행에 대한 안내 및 홍보('08.3월)
 - ※ 안전공단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자료 중 의료기관의 측정 및 검진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의료기관에 안내 홍보('08년)
- 의료기관 업무별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지침마련('08년)

- 「주사침손상예방을 위한 지침」, 「생물학적 유해요인 예방 지침」 등 감염성질환예방을 위한 KOSHA code 제정보급
- 의료기관의 특성상 교대작업, 심야작업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종사자가 다수이므로 건강예방을 위한 「교대제 건강관리지침」 제정
 - ※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08년)」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

2.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 보건관리자 역할 강화 및 역량 제고

- 보건관리자의 직무 이행실태를 연 2회 지도 점검하여 보건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08년)
 - ※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
- 300인이상 병원은 보건관리자의 전담여부 집중점검
- 보건관리자 업무지침 개발·보급하여 자율 예방활동 촉진(‘08년)
 - ※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
- 보건관리자 역할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홍보
 - * 「산업보건 우수사례발표대회」 의료기관 산업보건 우수사례에 대해 홍보

□ 안전보건관련 조직의 역할 강화

- 노사참여형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를 유도(안전보건정책팀 협조)
 - ※ ‘08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점검시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포함

□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산업안전보건 분야 반영 추진

-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사항이 포함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보건산업진흥원 협조)

3. 의료기관 산업보건 예방활동 조기 정착 유도

□ 의료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점검 및 기술지원 강화

○ 의료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정기점검 및 의료기관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통한 산업보건 예방활동 이행정착

※ 의료기관들의 산업보건 예방활동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300인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예방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50인~300인미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09년)

※ 50인미만 중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통한 예방활동 이행정착

* '08년에는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점검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산업보건 예방활동 점검포함, '09년부터 사업계획에 의료기관 정기점검 반영추진

○ 의료기관 종사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전문기술지원 강화

- 감염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집중하여 전문지원 방안 추진('09년)

※ 의료기관의 주사침손상사고 및 감염성질환예방을 위한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원 및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전문기술지원 제공,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및 관리기준을 보급

-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통계 생산을 위한 『주사침손상 감시체계』를 공단 연구원에 설치 운영('09년)

□ 협력업체 보건관리에 대한 병원의 책임관리 강화

○ 협력업체 보건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책임관리 유도('08년)

- 점검 시 협력업체 동시 점검

○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안법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적용방안 검토('08년)

- 의료기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보건관리 실태조사 시행